

## 경기꿈의대학 수업실행 과정의 교수자 행위자성에 관한 질적연구

최수인\* · 김영순\*\* (인하대학교)

### 국문요약

본 연구는 경기꿈의대학 참여 교수자의 수업실행 과정에 대해 행위자성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경기꿈의대학 참여 교수자 5명을 연구참여자로 선정하여, 질적 사례연구를 수행하였다. 자료수집은 서면 면담과 개별 면담을 통해 주로 이루어졌으며, 강의계획서와 연구보고서도 분석 자료로 활용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교수자의 과거 경험으로부터 반성적 사고와 교수자로서의 발전을 꿈꾸는 미래지향적인 면이 상호소통함으로써 교수자 행위자성에 영향을 미쳤다. 이는 교수자들은 경기꿈의대학이라는 구조적 맥락에서 성찰적 주체로서의 행위자성을 요구받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학생들에 대한 연민과 이해를 바탕으로 새로운 교육 환경 속에서 상호소통을 통한 성취를 이루고자 하였으며, 코로나 19로 인한 온라인 교육 환경에서 이들의 상호소통적 행위자성이 강화되었다. 셋째, 교육적 맥락에서 정답이 아닌 ‘방법’을 알려주는 수업을 운영하고자 하지만, 여전히 존재하는 신자유주의적 교육 기조 사이에서 딜레마를 경험했다. 또한 학생 이외의 참여 주체와의 상호소통 부족의 아쉬움을 표현하였다. 연구결과의 시사점은 경기꿈의대학이 진정한 마을교육공동체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참여 주체가 행위자성을 발휘할 수 있는 상호소통의 기회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교육공동체가 신자유주의적 교육 패러다임을 극복하고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사회적 현실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주제어] 경기꿈의대학, 교수자 행위자성, 마을교육공동체, 혁신교육, 질적연구

## I. 서론

교육의 수월성과 효율성이 강조되는 신자유주의적 교육 기조는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사회적 현실에 대응하기 어렵게 만든다(Freire, 1994). 혁신교육은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입시 위주의 교육과 권위주의적 교육에 대한 대안으로 논의가 시작되었다(강충열 외, 2013). 1990년대 후반 ‘열린교육운동’은 아래로부터의 교육혁신 운동으로, 교육과정의 다양성을 추구하고 학습자중심의 수업을 중심으로 하였다(문운, 2013). 열린교육이 교실의 열림을 상징적으로 의미하는 것이라면 마을교육공동체는 교실을 마을 전체로 확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마을교육공동체는 공교육의 난제를 적극적으로 극복하기 위해 2000년대 초반 경기도교육청을 중심으로 논의가 시작되었다(서용선 외, 2015).

\* 제1저자, 인하대학교 박사과정, [hsu.choi@gmail.com](mailto:hsu.choi@gmail.com)

\*\* 교신저자, 인하대학교 교수, [kimysoon@inha.ac.kr](mailto:kimysoon@inha.ac.kr)

경기혁신교육은 2009년 교사의 자발적 참여 중심의 교육개혁정책인 ‘경기혁신교육 1.0’으로 추진되었다. 이후 2014년 ‘경기혁신교육 2.0’에서는 혁신모델을 학교 밖으로도 확대하여 혁신교육 지구 지정과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이 시작되었다. 2018년부터는 ‘경기혁신교육 3.0’을 설정하여 ‘학생’과 ‘현장’이 주도하는 것을 강조하며, 특히 마을교육 확대를 통한 ‘교육다운 교육’을 실현하고자 한다. 경기꿈의대학은 ‘경기혁신교육 2.0’ 정책 추진에 의해 시행되고 있는 혁신교육사업으로, 학생들이 학력주의나 극심한 경쟁에서 벗어나 자신의 진로나 적성을 찾도록 지원하고, 기존 공교육에서 스스로 또는 타의로 소외된 학생들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이지영 외, 2020). 다시 말해 학생들이 경험하고 있는 배움과 삶에 대한 문제는 기존의 학교 환경에서는 적절하게 대처하기 어렵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마을로 배움의 공간을 확대하여 새로운 교육 환경을 제공하고자 한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학교 교육과 배타적인 영역이 아니며, 미래교육을 위한 새로운 교육 네트워크를 모색하기 위한 혁신교육적 시도이다.

교수자는 학생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구성되는 수업 안에서 핵심 주체로서의 역할을 담당한다. 수업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에 따라 수업을 계획하며, 수업 환경과 학생들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교수 전략을 선택한다(이소연, 2012). 경기꿈의대학은 교수자에게 특정한 교재나 교육과정을 부여하지 않는다. 그 때문에 교수자는 수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교육과정을 설계하고 강의계획서를 작성하는 등 강의 전반에 관한 계획과 실행을 전적으로 담당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일반적인 학교 수업과는 달리 평가가 없다는 점에서 새로운 교수자의 역할을 요구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본 연구의 연구문제를 “경기꿈의대학 수업실행 과정에서 교수자의 행위자성은 어떠한가”로 설정하였다.

연구문제를 탐색하기 위해서 질적 사례연구를 수행하였다. 경기꿈의대학 교수자의 수업실행 경험을 상호소통의 관점에서 행위자성을 살펴보는 것은 학교와 지역사회가 교육을 연계하여 수행하는 맥락을 이해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아울러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수자가 어떠한 행위자성을 발현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미래 교육 환경에서 교수자의 역할에 대한 모색을 논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 II. 이론적 배경

### 1. 경기꿈의대학의 정체성

경기꿈의대학은 ‘경기혁신교육 2.0’의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을 근거로 하여 설립되었다.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은 마을과 지역사회의 가치와 협력을 바탕으로 학교 밖으로 배움터의 개념을 확장하고,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학생중심의 혁신모델을 지역공동체에 확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경기도교육청, 2017). 2017년 1,645강좌가 운영되었으며, 2018년 2,003강좌로 증가하였고 2020년에는 2,131강좌가 개설되었다. 학생들은 학년에 상관없이 자신들의 진로와 관련된 과정을 자유롭게 수강신청할 수 있으며, 강좌 당 70% 이상 출석한 학생은 이수 결과를 학교생활기록부의 ‘창의적 체험활동’의 ‘진로활동’란에 기재할 수 있다(경기도교육청, 2021).

경기도교육청(2021)에서 경기도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경기꿈의대학 인식조사 결과 인지도는 83.47%, 만족도는 81.27%로 나타났으며, 주된 만족 사유로는 ‘학교에서 경험할 수 없는 내용을 배울 수 있어서’, ‘희망 진로 관련 흥미로운 경험을 얻게 되어서’, ‘진로 설계 또는 진로 개척에 도움이 되어서’ 등으로 나타났다.

이혜정, 최유리와 홍세영(2019)는 경기꿈의대학 강사들이 인식하는 경기꿈의대학 강좌의 특성에 대해 다음 세 가지를 제시하였다. 첫째, 학생 활동 중심 수업으로서 다양한 방식을 활용하여 학생들의 토론과 참여를 중심으로 강의를 진행한다. 강의식 위주의 수업이 아닌, 하나의 주제에 대해 학생들 각자의 생각을 들어보고, 서로의 의견을 만들어 나가는 것을 중요시 한다. 이러한 학습자 주도적인 수업은 교수자와 학생 간의 긴밀한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한다는 특징이 있다(이민경, 2020). 둘째,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지식을 강조한다. 이는 강좌 주제나 내용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기는 하지만, 대학생 대상 강의와 비교하면 실생활 응용 측면을 보다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셋째, 학생들의 진로 인식을 심화할 수 있는 수업으로, 고등학생들에게 진로와 관련하여 일종의 ‘맞보기’를 하는 수업이라는 목적을 두고 있었다.

박지혜(2020)는 경기꿈의대학을 고등학생들의 진로역량을 신장시키는 체험중심 프로그램이라 정의하였다. 경기꿈의대학의 진로교육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해야 하며, 중도탈락자 방지를 위한 수업 이수 기준 강화 및 수업의 질 관리를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또한 학교 밖 마을공동체 프로그램을 학교 안 정규 교육과정으로 진입시켜 더 많은 학생이 참여하고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책 연구를 제안하였다.

최태호(2018)는 경기꿈의대학이 혁신교육 측면에서 많은 성과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규범적으로 작동하는 교육철학적 근거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기꿈의대학이 혁신교육을 선도하는 과정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및 시민사회와의 협력과 공감대 형성, 일회성 강좌가 아닌 장기적인 관점에서 다양한 강좌 개발 및 운영, 전국적인 네트워크 형성을 통한 학생 지원 등을 제안하였다.

장세영(2020)은 경기꿈의대학이 지역 연계를 통해 다양한 강좌를 제공하는 것이 진로 교육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임을 강조하였다. 이를 위해 대학, 단위학교, 교육지원청 등의 협업을 통해 개방적인 교육 환경을 구축하고, 온오프라인을 활용한 교육 플랫폼을 토대로 충분한 피드백을 주고 받을 수 있는 학습 환경에 대한 중요성을 제안하였다. 또한 지역사회의 주민과 학생이 자기주도적인 배움과 학습 여건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역과 대학과의 교육 생태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서용선 외(2015)는 마을교육공동체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유형은 마을을 통한 교육(learning through community), 마을에 관한 교육(learning about community), 마을을 위한 교육(learning for community)으로 정의하였다. 첫째, 마을을 통한 교육은 그 지역사회의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이루어지는 학습의 형태를 말한다. 학생들의 배움은 지역 인프라를 통한 참여, 실습, 탐방, 체험, 실천 등의 방법으로 제공되며,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사회적 학습 역량을 키워 나간다. 둘째, 마을에 관한 교육은 학생이 속해 있는 마을과 지역에 대해서 배우는 것을 말한다. 더 나아가 타 지역과의 협력과 상생을 위하여 다름에 대한 이해, 다양성에 대한 인식, 민주

적 시민정신 등의 역량을 함양하게 된다. 셋째, 마을을 위한 교육은 학생들이 지역사회 발전의 훌륭한 자원이 될 수 있도록 미래진로 역량을 키워주는 것을 말한다. 지역사회의 환경적 기반을 근거로 하는 학습을 통해 자연스럽게 진로에 대한 관심을 이끌어낸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경기꿈의대학은 지역공동체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혁신교육으로써 마을교육공동체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유형 중 ‘마을을 위한 교육’이라 정의할 수 있다. 그러나 최태호(2018)가 지적한 바와 같이 경기꿈의대학은 규범적으로 작동하는 교육적 맥락에 영향을 받는다. 박지혜(2020)가 경기꿈의대학을 마을교육공동체가 아닌 학교 안에서 수행되는 교육과정으로 편입할 것을 주장한 것도 이러한 규범적 맥락에 영향을 받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마을교육공동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과정에 학생, 학부모, 교수자, 학교, 지역사회 등의 교육 주체 모두가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상호협력을 통해 마을이 학생들의 배움터가 되고 학생들은 마을의 일원이 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다(최지인, 2017).

경기도교육연구원(2021)에서는 그간의 경기꿈의대학 사업의 성과를 점검하고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연구보고서를 내놓았다. 특히 주목할 것은 중장기 발전방안이다. 첫째, 현재는 시범적으로 시행되고 있지만 향후 전면적으로 전개될 고교학점제와의 연계방안이다. 이는 지역사회의 교육 자원이 학교 교육과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게 하는 것이다. 둘째, 온라인 강좌의 확대이다. 현재의 코로나 상황에서 모든 수업이 온라인으로 진행되는데, 향후 코로나 상황이 완화될 경우 온-오프라인 수업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수업의 콘텐츠 혹은 학습자와의 상호작용 방식에 따라 적절한 온라인 강좌 개발이 요구된다는 점이다. 셋째, 경기꿈의대학 강좌들이 진로 모색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시작된 만큼 심화학습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이 요구된다. 다시 말해 현재 제공되는 17차시의 수업이 진로를 심화시키기에는 역부족이란 것이다. 어떤 학생이 교사로서의 꿈을 갖고 관련 교과목인 교육학, 심리학, 사회학, 교육철학 등 연계교과목 이수를 할 수 있도록 관련 교과목의 연계나 한 교과목의 심화 교과 모듈, 즉 교육학개론 수강 이후 교육사, 교육철학, 교육심리학, 교육사회학 등을 수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넷째 지역 중심의 교육과정 운영이다. 이는 주체가 학교가 아니라 지역이 중심이 되는 지역화 교육과정 운영방식으로 수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제언은 마을교육의 핵심 가치의 실현으로 평가할만하다. 학습자들이 지역사회를 알아가고 지역사회의 지식을 통해 진로를 개발하며, 다시 지역사회에 그들의 역량을 발휘해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게 하는 교육의 선순환적 가치구조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현실은 경기꿈의대학이 표면적으로 모든 지역민이 교육에 참여하는 마을교육공동체를 지향하고 있지만 기존의 교육 규범적 영향을 여전히 받고 있다.

## 2. 교수자 행위자성

한 개인은 복합적인 맥락과 상황 안에서 행위자성을 발휘하며 살아간다. Taylor(1977)는 행위자성에 대해 자신의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했는지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이라 하였다. Bandura(1982)는 행위자성을 복합적인 맥락 안에서 행동하는 과정에서 무엇인가에 영향을 미치

는 능력이라 정의하였다. 그러나 행위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개인과 집단, 사회 등이 복합적으로 상호작용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개인의 역량만을 강조하는 입장은 맥락이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간과하게 된다. 구조주의적 관점에서 Giddens(1984)는 행위자성은 개인과 사회 구조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일어난다고 보았다. 또한 개인과 사회 구조는 긴밀하게 영향을 주고받는 상호의존적인 관계이며, 우열을 나눌 수 있는 것은 아니다. Archer(2000) 또한 개인과 사회 구조의 상호작용을 통해 행위자성이 발현되는 것으로 정의한다. 그러나 양자 간의 상호의존적 관계로만 설정하는 것은 시간의 흐름에 따른 영향력을 분석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Emirbayer와 Mische(1988)은 행위자성은 과거-현재-미래라는 시간적 차원이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생태학적 관점에서 교수자 행위자성에 대해 정의한 Biesta와 Tedder(2006)는 행위자성은 시간성과 관계성을 바탕으로 발휘되며, 이를 통해 행위자 개인이 '특정 상황'에서 성취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다시 말해 개인의 과거 경험과 미래에 대한 투영이 현재의 구조적, 물리적 맥락과 상호작용함으로써 행위자 개인이 특정한 상황에서 변화의 주체가 되어가는 것을 행위자성이라 보았다(Priestley, Biesta & Robinson, 2015).

국내 연구에서 교수자의 행위자성은 주로 생태학적 관점에서 다루어져 왔으며,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유용모, 김미숙(2020)은 중소도시 지역에서 교육역량 강화 사업을 담당하는 일반교사의 행위자성을 생태학적 관점에서 논의하였다. 교수자의 과거와 미래, 현재의 학교의 맥락적 환경을 고려하면서 교육역량 강화 사업을 교수자가 어떻게 실천해나가는지에 대한 행위자성을 살펴보고, 변화를 이끌어가는 능동적인 행위자성을 발현하기 위한 환경 구축을 제안하였다. 이해경, 김희백(2021)은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과학 교사의 원격 수업 실행 사례를 통해 생태학적 관점에서 행위자성을 살펴보았다. 과학 교사마다 변화된 교육 환경에서 행위자성이 다르게 나타난 원인을 교사의 시간적 차원과 현재의 맥락을 연결지어 설명하였다. 또한 능동적인 행위자성이 발현되지 않는 원인에 관해 탐구하였다. 국내 연구에서 생태학적 관점의 교수자 행위자성을 '행위주체성'으로 번역하여 사용하기도 하는데, 이는 교수자 개인의 능동적인 행위 그 자체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이다(이성희, 2021). 즉 생태학적 관점에서는 교육역량강화 사업이나 코로나 팬데믹 상황 등 특정한 상황이 존재하는 맥락을 전제로 한다. 이를 바탕으로 행위자 개인은 여러 맥락과 상호작용 함으로써, 상황적 성취를 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그러나 수업 실행 과정은 교수자의 주체적 행위만으로 구성되는 것이 아니며, 학생과 교수자, 학교 환경 등이 상호작용하며 행위한다는 점에서, 행위자성의 관계 및 과정적 측면을 면밀하게 탐구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개인들은 익숙한 자신과 낯선 타자와의 만남을 통해 역동적으로 관계를 이루어 나간다(최승은, 2015). 일상 속에서 이루어지는 역동적인 만남의 과정을 통해 익숙한 것과 낯선 것에 대해 지각함으로써 스스로 성찰이 이루어진다(Holzbrecher, 2014). 다시 말해 교수자들은 수업 실행의 과정에서의 익숙한 것과 낯선 것과의 역동적인 만남의 관계를 통해 성찰할 수 있다.

Buber(1958)은 교육 환경에서 교수자와 학생과의 관계를 상호의존적 관계로 보았다. 교수자가 학생에게 영향을 주는 동시에 학생이 교수자에게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호성은 타자와의 관계 중 가장 참된 만남의 행위인 '나와 너'로 정의된다. 교육적 행위에서 만남의 관계는

필연적으로 발생한다. 교수자는 자신의 과거와 미래로부터의 지향성을 바탕으로 교육적 맥락의 상황과 만난다. 또한 교수자는 학생들, 동료들과 만남의 관계를 형성한다. 따라서 교수자의 행위자성을 논하기 위해서는 만남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행위자성을 다룰 필요가 있다.

Burkitt(2016)은 상호작용을 하는 어떤 사람도 상호작용의 순간에 완전한 행위자(Agency)나 완전한 순응자(Patency)가 될 수 없다고 하였다. 항상 행위자이자 순응자로 다른 사람에게 행동하고 다른 사람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성찰과 반성적 선택을 하게 된다. 또한 성찰과 반성적 선택은 구조적 맥락 안에서의 다양한 상황으로 인해 영향을 받는다.

Dewey(1899)는 교육공동체에 대해 다양한 이해관계를 지닌 주체들이 자신들이 지닌 경험과 상식을 공동체 안에서 상호소통과 교섭작용을 통해 공동체가 발전하고 재구성해나갈 수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마을교육공동체는 마을이라는 교육공동체 안에서, 마을이 지닌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학생, 교수자, 마을기관, 교육청 등이 연대 협력함으로써 마을교육공동체의 목표와 가치를 실현할 수 있다(이지영 외, 2020).

정진철 외(2020)에 따르면 마을교육공동체는 마을이라는 공간 안에서 교육에 대한 공유된 가치와 목표를 가진 구성원들이 상호작용하는 공동체로 정의하였다. 또한 마을교육공동체는 교육을 제공하는 주체가 교사 한명이 아니라, 학생과 학부모, 지역사회 등 다양한 주체가 서로 연계되어야 한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두고 있다(윤혜정, 김희수, 2019). 학생이나 교수자, 지역사회는 행위자나 순응자로서의 고정된 역할을 부여받은 것이 아니라 상호작용을 통해 경기꿈의대학의 가치와 목표를 실현하고 있다.

따라서 경기꿈의대학 교수자의 행위자성을 살펴봄에 있어 상호소통을 바탕으로 행위하는 행위자성의 측면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교수자의 행위자성을 토대로 경기꿈의대학의 정체성이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다는 의의가 있다.

### Ⅲ. 연구방법

#### 1. 연구설계

이 연구는 질적연구의 대표적인 방법인 사례연구를 실시하였다. 질적연구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사례연구는 ‘사례’라는 경계 지어진 체계에 있는 연구참여자가 장소 등의 자료수집을 통해 ‘사례’에 집중하도록 함으로써 연구하고자 하는 현상을 분명하게 볼 수 있게 한다(김영순 외, 2018). 사례연구는 특정적, 기술적, 발견적이라는 특징을 지닌다. 먼저 특정한 상황과 사건, 현상에 초점을 두고, 특별한 그룹의 연구참여자가 구체적인 연구문제에 어떻게 대면하는지 관심을 가진다는 점에서 특정적이다(Shaw, 1978). 둘째, 사례연구의 최종 결과물은 조사된 사건이나 요소에 대해 집중적으로 묘사한다는 점에서 기술적이다(Smith, 1978). 셋째, 사례연구의 결과는 독자들에게 새로운 의미의 발견과 경험이 되기도 하고, 알고 있던 것을 확인시켜 줌으로써 현상에 대

한 재사고와 통찰의 기회를 제공한다(Stake, 1981; Yin, 1994).

본 연구는 I 대학교가 운영하는 경기꿈의대학의 교수자 5명을 각각의 사례로 하는 단일집단 다중사례 연구이다. 연구목적에 따른 자료수집을 위해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활용한 서면 면담과 개별 면담을 진행하였다. 또한 연구참여자들의 강의계획서와 경기꿈의대학 연구보고서를 보조적인 연구자료로 활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개방코딩의 과정을 거쳤으며, 이를 바탕으로 교수자의 행위자성에 대해 기술하였다. 본 연구는 교수자의 행위자성에 대한 함의점을 제시하고, 현상에 대한 통찰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 연구의 타당도와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동연구자와 주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연구결과에 대해 협의하였으며, 정기적인 세미나<sup>1)</sup>에서 이루어진 논의 결과를 논문에 반영하였다.

## 2. 연구참여자

연구자는 연구목적에 적합한 연구참여자 선정을 위해, I 대학교가 운영하는 경기꿈의대학 워크숍에 참여하여 교수자들을 관찰하였다. 이후 학생들의 수업 만족도 결과가 우수하고, 3강좌 이상을 운영하는 연구참여자 5명을 선정하였다. 연구참여자에 대한 일반적인 특성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연구참여자의 일반적인 특성

구분	과목계열	성별	강의경력
연구참여자 A	인문사회계열	여	2년
연구참여자 B	공학계열	남	2년
연구참여자 C	인문사회계열	남	2년
연구참여자 D	인문사회계열	여	4년
연구참여자 E	공학계열	남	2년

연구참여자들은 모두 박사수료 이상의 관련 분야 전문가로, 경기꿈의대학 이외에도 다양한 강의경력을 가지고 있다. 과목계열은 인문사회계열과 공학계열로 구분된다. 강의경력은 2021년 7월 기준으로 작성한 것으로, 경기꿈의대학에서의 강의경력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학생 만족도 및 이수율, 운영 강좌 수 등을 기준으로 연구참여자를 선정하였기 때문에 과목계열이나 강의경력, 성별은 따로 제한하지 않았다.

1) 2021년 6월 28일, 7월 5일, 7월 19일 인하대학교 BK21 FOUR 글로벌다문화교육연구단이 주최하는 BK참여대학원생 정기 세미나에 참여하여 연구물을 발표하고 동료 연구자와 참여교수들의 코멘트를 종합하여 정리하였다.

### 3. 자료수집 및 분석

자료수집을 위해 연구설명문을 작성하여 연구참여자들에게 설명하고 연구참여 동의를 받았다. 이후 연구진은 이메일을 통한 서면 면담과 비대면 화상회의(zoom)를 활용한 개별 면담을 진행하였다. 이와 더불어 연구참여자들이 작성한 강의계획서와 경기꿈의대학 연구보고서 등을 보조자료로 수집하였다. 자료수집 과정의 개요는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면담을 통한 자료수집 과정 개요

구분		연구참여자 A	연구참여자 B	연구참여자 C	연구참여자 D	연구참여자 E
서면 면담	날짜	2021.6.27.	2021.6.27.	2021.6.27.	2021.6.25.	2021.7.1.
	방법	이메일				
개별 면담	날짜 (시간)	2021.6.30. (1900~2015)	2021.7.2. (2035~2200)	2021.7.2. (1900~2020)	2021.6.30. (2030~2155)	2021.7.7. (1600~1715)
	방법	비대면(ZOOM)				대면

서면 면담을 위해 2021년 6월 22일 이메일을 통해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연구참여자에게 배포하였고, 2021년 6월 25일~7월 1일까지 자료를 수집하였다. 서면 면담의 주요 질문 내용은 ‘경기꿈의대학 교수자로 참여하게 된 계기’, ‘경기꿈의대학 목적에 부합하기 위한 수업 운영’, ‘코로나 이전과 이후 수업방식 변화에 대한 대처’, ‘수업 안에서의 학생들과의 상호작용’, ‘수업에 대한 피드백 방법’ 등이다. 서면 면담을 통해 수집된 자료의 분량은 A4 용지 60여매이다.

서면 면담 이후 개별 면담은 2021년 6월 30일~7월 7일까지 진행되었다. 개별 면담은 기계적으로 질문지를 사용하기 보다는 교수자로서의 경험에 대해 연구참여자가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필요한 경우 서면 면담 내용에 대한 보충 질문을 하였다. 코로나 19 상황을 고려하여 연구참여자 A~D는 비대면 면담으로 진행하였으며, 연구참여자 E와는 코로나 19 위생 수칙을 준수한 상황에서 키플숍에서 대면 면담을 진행하였다. 본 연구는 인하대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에 준하는 연구윤리를 준수하기 위하여, 연구참여자에게 연구목적을 안내하고 동의를 얻었으며, 수집된 자료는 연구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을 것을 고지하였다. 모든 내용은 연구참여자의 동의를 얻어 녹화 및 녹음을 하였다. 개별 면담을 통해 수집된 자료의 분량은 A4 용지 150여매이다.

자료분석은 상호소통의 맥락에서 경기꿈의대학 교수자의 행위자성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포착하기 위하여 반복적으로 수집된 자료를 읽어 나갔다. 먼저 상호소통의 맥락을 중심으로 사례를 분류하였다. 이후 분류한 사례들과 강의계획서, 연구보고서를 비교하면서 행위자성을 발견하는데 각 사례가 어떠한 영향을 주고받는지 면밀하게 검토하였다.



## IV. 연구결과

### 1. 과거와 미래와의 상호소통의 과정

교수자는 자신의 과거 경험, 교육적 신념, 교육에 대한 인식 등은 행위자성을 발휘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Miller et al., 2020). 본 연구의 연구참여자들은 자신들의 과거 학창시절에 대한 결핍이 답습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과 교수자로서 새로운 교육 환경을 경험해보고자 경기꿈의대학에서 강의를 담당하고 있었다. 과거로부터의 성찰적 태도와 미래에 대한 지향성은 학생 및 교육 환경 등과의 상호소통하는 행위자성에 영향을 미친다.

#### 1) 과거의 결핍이 답습되지 않기를

이론적 배경에서도 논의된 바와 같이 경기꿈의대학 교수자들은 경기꿈의대학이 학생들의 진로 설정에 도움을 주는 과정임을 인식하고 있다. 연구참여자들은 자신들이 청소년기 진로에 대한 정보를 얻지 못해 혼자서 오롯이 해결해야만 했던 과거의 기억을 떠올린다. 연구참여자 E는 “제가 대학에 입학할 때만 해도, 학과에 대한 사전 지식과 자신의 흥미보다는 성적에 맞춰서 지원했던 기억”(개별 면담)이 있다. 자신이 어떤 것을 하고 싶은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수능시험 점수에 맞추어 대학에 입학했기 때문에 자신이 선택한 학과가 무엇을 배우고 어떠한 일을 미래에 할 수 있는지 아무런 사전 지식이 없었다. “지금 고등학생들도 사실 제 어렸을 적과 별반 다르지 않을 것”(개별 면담)이기에, 경기꿈의대학 수업에서 만나는 학생들에게 여러 정보를 제공해주고자 한다.

연구참여자 C는 자신의 관심 분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진로를 설정해야 하며, 어떤 공부를 해야 하는지 막막함을 경험했다. 책이나 TV, 인터넷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정보를 통해 자신의 결핍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도 진로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았다.

관심 있는 분야의 관련 정보들을 접할 때마다 어려운 용어들이 많았고 파편적으로만 관련 정보들을 접할 뿐, 정치과정을 체계적으로 알아가는 데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막상 희망했던 학과에 입학한 뒤에도 무엇을 배우는지, 세부적인 진로 설정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연구참여자 C 서면 면담

이론 속의 어려운 용어들이 현실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대학생생활에서 다양한 교류를 통해 몸소 터득해 나가는 것이 연구참여자 C가 찾은 방법이였다. 자신의 후배들 또한 자신과 비슷할 것이라 생각하여, 출신 고등학교에서 대학 홍보 활동을 통해 자신의 경험담을 공유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실제로 대학교 교정에서 출신 고등학교 후배들을 통해 “나의 경험담이 진학 결정에 도움이 되었다는 이야기”(개별 면담)를 듣고 큰 보람을 느꼈다.

연구참여자 D 또한 하고 싶었던 분야가 고등학생 시기 정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아는 게

없었어요”라고 회상했다. 연구참여자 D는 대학교를 졸업하는 시기가 될 때까지 자신의 구체적인 진로를 설정하지 못했지만, 지도교수의 조언을 통해 진로 방향을 결정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험은 학생들에게도 자신에게 적극적으로 진로에 대한 세세한 부분을 제공해주는 행위자성으로 나타난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을 하고 싶었는데~ 사실 정말 아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정말 기본적인 거. ‘\*\* 전공은 문과인가요 이과인가요’ 부터 시작해서 ‘\*\*을 잘하려면 미술 학원은 다녀야 되나요’ 이런 정말 기본적인 걸 많이 물어보거든요. 근데 저는 그냥 1차 시에 딱 말해줘요. -연구참여자 D 개별 면담

## 2) 교수자로서의 발전의 기회

경기꿈의대학은 자율적인 분위기 속에서 다양한 교육과정을 시도해볼 수 있으며, 교수자로서의 경력을 쌓을 기회가 된다. 또한 강의주제에 대한 정해진 틀은 존재하지 않으며, 고등학생 수준에 적합하고 자기 주도적 학습과 사고력 신장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주제가 권장된다(이혜정 외, 2019). 교수자는 이러한 기준에 맞게 강의주제를 설정하며, 참여기관과 교육지원청, 도교육청의 심의 및 선정 절차를 거쳐 최종 선정된다(경기도교육청, 2018). 연구참여자 A는 경기꿈의대학은 자신이 지닌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나누기에 적합한 시스템으로 “경기꿈의대학의 가장 큰 장점은 강사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전문지식과 경험을 재구성하여 교과목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라 평가한다.

대학 강의는 주어진 교과목이 지정되지만, 경기꿈의대학은 내가 가장 잘 할 수 있는 분야에 시대적 요구를 첨가하여 교수설계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내 경우도 강좌 개설 시부터 수업 전 과정까지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교과를 선정한다. 이것은 경기꿈의대학에 계속 참여하게 하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연구참여자 A 서면 면담

연구참여자 B의 경우에도 자신이 지금까지 배우고 경험해온 모든 것들을 경기꿈의대학이라는 교육 환경 안에서 “고등학생들과 소통하면서” 자신의 분야를 확대해가고자 한다. 현재 경기꿈의대학에서 기초적인 과목을 강의하고 있으나, 이곳에서의 교수 경험이 향후 학생들에게 별도의 심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 연구참여자 D와 E도 경기꿈의대학은 단순한 교수 경험 그 이상의 공간으로, 전공 분야의 교수자로 성장해나가는 시험적 공간이다. 교수자 자신의 발전 기회가 되는 경기꿈의대학에서 연구참여자들은 자신만의 커리큘럼을 개발하고, 탐색하는 능동적인 행위자성을 발휘한다.

개인적으로 학생들 앞에서 강의하는 것을 좋아하는 편입니다. 실제로 현재 대학에서 강사로 일하고 있는데 강의하는 게 매우 재미있는 것 같아요. 또한 8월에 박사학위를 받는 시점에서, 교수직이나 연구직으로 진로를 결정할 때 강의 경험을 쌓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연구참여자 E 개별 면담

## 2. 학생과의 상호소통의 과정

이성희(2021)은 교수자의 행위자성은 ‘관계맺기’로부터 발휘됨을 강조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은 학생과의 상호소통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그들에 대한 연민의 감정을 느끼게 되었으며, 이러한 감정을 토대로 학생들이 현재 놓인 상황에 대해 이해하고자 하였다. 행위자로서 상호소통하는 행위는 학생에 대한 이해와 연민으로 이어지고, 교수자들은 자신들의 과거 경험을 나누거나, 학생들을 독려하는 등의 행위자성으로 연결되었다. 또한 교수자들은 학생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학생의 성취를 이끌어 내었으며, 교수자도 이 과정에서의 교수자로서의 성취를 얻는다. 다시 말해 교수자와 학생은 상호의존적 관계로, 행위자로서 또는 순응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다. 코로나 19라는 유례없는 팬데믹 상황은 온라인 수업환경으로 변화하게 하였다. 학생과 교수자의 소통은 상호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에, 교수자들은 온라인 환경에서의 소통의 방법을 다양하게 시도하였다.

### 1) 학생에 대한 연민과 이해

연구참여자들에게 학생들은 과거 자신의 모습이기도 하다. 힘든 학교생활과 학원까지 마치고 지쳐있는 상태에서 수업에 참여하기 위해 앉아 있는 아이들의 모습에서 연민의 감정을 느낀다. 연구참여자 B는 “이미 학교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올 텐데 굳이 이 수업으로 스트레스를 주고 싶지 않다”고 말한다. 이는 다른 연구참여자들도 별반 다르지 않다. 연구참여자 A는 “내일 시험”을 걱정하고 있을 학생들에게 경기꿈의대학의 수업만큼은 짐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

이렇게 켜 놓고 땀짓하는 애들이 있어요. 네 그럼 알죠. 저희가. 왜냐하면 오랫동안 강의를 했는데 왜 모르겠어요 아이들. 근데 그 아이는 그 나름대로 사정이 있는 거잖아요. 시험이 너무 급하거나 아니면 이 시간보다 그게 더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고. -연구참여자 A 개별 면담

비록 학생들이 수업에 집중하지 않고 있더라도 비난보다는 학생들의 상황을 이해하고 공감하고자 한다. 연구참여자 C는 “학생들이 처한 상황을 공감해주고 노력하기 위해 일방적인 조언보다는 학생들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하고자 노력한다. 또한 모든 학생들에 대한 가능성을 믿고, 혼내기보다는 타이르고 존중하는 태도로 표현된다. 학생 상황에 대한 연민과 이해의 태도 이면에는 연구참여자 D와 같이 권위적이고 학생들에게 무관심한 교사들로 인해 상처받았던 지난 기억들이 뒤섞인 결과물이기도 하다.

저는 학생들을 보면서 저의 어릴 적 모습을 많이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릴 적 선생님이나 어른들의 말에 상처받은 적도 있었고 ‘어릴 적 이런 것을 알았다면 지금 더 좋았을텐데’ 라는 것을 생각합니다. -연구참여자 D 서면 면담

## 2) 상호소통을 통한 ‘성취’

경기꿈의대학은 학생중심형 수업을 표방하고 있으며, 수업 안에서 학생은 능동적인 행위자성을 발휘함으로써 자신의 미래를 진취적으로 설계해 나갈 수 있다. 2021년 1학기 연구참여자들의 강의계획서는 토론이나 발표, 실습이 중심이 되는 학생중심형 수업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학생중심형 수업을 진행함에 있어,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는 필수적이다. 따라서 교수자들은 학생들이 수업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노력한다. “수업 듣는 것보다 대학 가는 게 제일 걱정인”(연구참여자 E 개별 면담) 학생들을 수업 안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학생들이 가장 흥미 있어 할 만한 정보를 제공한다.

\*\*전공하면 뭘 배우냐 그리고 정말 또 궁금해하는 게 전공 이름이 워낙 다양하니까 그런거 많이 물어 보고. 또 커리큘럼과 \*\*학과 나오면 사람들이 편견이 다 디자이너만 하는 줄 아는데 관련 직업은 정말 정말 많다. 수백개다 이렇게 알려줘요 - 연구참여자 D 개별 면담

연구참여자 C는 진로에 대해 구체적으로 질문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주변 경험담을 활용해서 학생들의 진로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해 주기 위해 노력한다. 최대한 “다양한 선택지”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학생들이 자신들의 미래를 설계해나가기 희망한다. 또한 과제도 소통의 수단으로 활용된다. 일반적으로 과제가 학생들의 성취를 점검하거나, 그것을 끌어올리는 수단으로 활용된다면 경기꿈의대학에서 과제는 교수자와 학생과의 소통을 유도하고, 학생이 자신의 능동성을 발휘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한 차시가 끝난 뒤 1주간에 과제를 주어 그 차시에 배운 것을 적용하여 오픈채팅방에 올리도록 하였고, 다른 학생들의 활동한 모습을 공유하면서 각자 상황과 수준에 맞는 자신만의 방식을 정착하도록 이끄는 시간이다. -연구참여자 A 서면 면담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학생들이 점진적으로 자신들의 능동성을 발휘하며 성장해나간다. 이것은 점수나 등수로는 환산되지 않는 경기꿈의대학에서의 ‘성취’이다. 연구참여자들은 학생들이 능동적으로 자신의 관심사를 찾고, 노력해 나가는 모습에서 큰 보람을 느낀다.

학생이 스타트업을 준비를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좀 이제 도움을 받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고등학교 내에서 하는 큰 행사가 있는데 거기다가 자기 프로젝트를 발표를 하고 코딩 짠 것도 공유를 하고 이런 시간을 가지니까요. 그래서 따로 만나서 그 친구가 가지고 온 내용에 대해서 제가 코칭을 해주고 그 다음에 뭐 코딩 지도 같은 것도 좀 해주고 앞으로 가는 방향에 대해서도 한번 모색을 해보고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연구참여자 B 개별 면담

## 3) 코로나 19 환경에서 더 강조되는 상호소통

코로나 19 팬데믹 상황은 기존에 익숙했던 것에서 새로운 것에 적응할 것을 요청했다. 교육 환경도 이에 따라 현장 수업이 아닌, 온라인 수업환경에 적응해야 했다. 경기꿈의대학도 2020년

1학기부터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온라인 수업 시행 초기에는 학생이나 교수자 모두 어려움을 겪었다. 이혜경과 김희백(2021)에 따르면 코로나 19로 인한 온라인 수업은 교수자가 수업에 있어 변화를 주도하게 되는 계기를 마련한다.

코로나 이후,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되면서 가장 난감했던 부분은 일부 학생들이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단지 출석만 완료하여 '생활기록부'에 이수 기록만을 남기려 했던 것입니다. 오프라인에 비해 온라인에서는 학생들의 수업 집중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도 난감한 부분이었습니다. - 연구참여자 C 서면 면담

학생들은 코로나 19 이후 수업에 '참여'하기보다는 '출석'하여 기록만을 남기는 태도를 보여주었다. 학생과의 상호소통은 경기꿈의대학에서 성취로 이어지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교수자들은 학생들을 수업 안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노력한다. 수업 중간중간 호명을 하거나 가벼운 질문으로 분위기를 환기시키는 행위는 연구참여자들의 상호소통을 위한 노력이었다. 한편 공학 계열을 강의하였던 연구참여자 B와 E는 실습 과정에서 학생들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초반에 어려움을 경험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온라인 수업환경이 익숙해지면서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상호소통을 실천해나간다.

코딩 중 나타나는 오류들에 대해서 학생들이 직접 ZOOM의 채팅창에 발생한 오류 메시지를 공유할 수 있게 했습니다. 학생들이 공유해 준 내용을 다른 학생들과 함께 보며, 이러한 오류에서는 어떻게 대처해야 한다는 등의 부가적인 내용 전달이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연구참여자 E 서면 면담

'과제'는 코로나 19 환경에서도 중요한 소통의 역할을 한다. 연구참여자 C는 소극적인 학생도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학생들의 특성을 파악하고 그에 맞는 과제를 부과하고, 수업 중 간단하게 발표의 시간을 가졌다. 연구참여자 A의 경우 과제를 통해 배운 것을 실천하고, 학생들끼리 서로의 경험을 나눌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나중에 최종적으로 그런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나면요. 학생들한테 미션으로 '스트레스 받은 나한테 내가 나를 위로를 좀 해줘라'는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내가 스트레스 받으면 내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리고 다음 수업에서 해본 경험을 서로 나누는 거예요. -연구참여자 A 개별 면담

### 3. 교육적 맥락과의 상호소통의 과정

경기꿈의대학은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법률적 토대를 마련함으로써, 안정적인 출발과 더불어 타시도에도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또한 혁신교육에 대한 개념과 철학이 반영되었으며, 학생들에게 수업을 통해 어떠한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지 명확한 방향성을 제시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최태호, 2018). 따라서 교수자들도 이러한 의의에 근거하여 정답이 아닌 방법을 알려주는 수업을 제시하는 행위자성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여전히 존재하는 기존의 규범과의 상호소통 속에서

수업 가치에 대한 딜레마를 경험한다. 이러한 딜레마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다양한 집단, 맥락과의 상호소통의 기회를 확대하고 행위자성을 발휘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 1) 정답이 아닌 방법을 알려주는 수업

얕과 삶이 일치되기 위해서는 학생들에게 정답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 중요하다. 연구참여자 A는 자신의 수업에 대해 학생들에게 “방향에 대한 핵심적인 줄기를 잡아주는 수업”이라고 정의하였다. 처음부터 과제를 던져주고 해보라는 식의 수업보다는 하나하나 그 과정과 방법을 상세하게 지도하였다.

‘한번 해봐라.’ 대부분 그런 방법으로 접근을 하는데, 사실 우리는 아이들한테 공부를 잘하는 기술을 한 번도 가르쳐준 적이 없는 거예요. 공부를 어떻게 하는지 방법을 안 가르쳐주고 공부만 잘하라고 하니 까 아이들이 못하는 거예요. -연구참여자 A 개별 면담

이러한 교수과정이 가능한 이유는 경기꿈의대학에서의 수업 계획은 교수자의 자율성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교수자들은 기존의 교육적 환경 안에서 시도해보지 못했던 다양한 수업 방식을 경기꿈의대학 안에서 실현한다. 그것은 “직접적인 해결책을 주기보다는 직접 해결책을 찾아낼 수 있고 다양한 방향을 제시해 주는”(연구참여자 E 개별 면담) 수업 형태로 제시된다. 공학 계열 수업을 담당했던 연구참여자 B와 E도 이론은 최대한 짧고 중요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교수하고, 실습의 기회를 최대한 제공하고자 한다.

분명히 이해는 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직접 해보라고 하면 키보드에 손을 못 놓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첫 시간에 알려주는 거는 이제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 있잖아요. 그것처럼 백번 보는 것보다 한 번 치는 게 낫다. 무조건 해봐라. -연구참여자 B 개별 면담

공학계열이 아닌 연구참여자들의 수업에서도 이론이 실제 현실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찾아본다. 연구참여자 D는 코로나 19로 변화한 사회 현상들을 수집하여 학생들이 책 속에서의 삶이 아닌 현재의 삶의 과정을 배울 수 있도록 한다. 연구참여자 E는 이론과 현실이 별개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 관련 사례들을 학생들이 직접 찾아볼 수 있도록 연습을 시킨다.

그래서 실제 사례들을 계속 보여주고 직접 또 본인이 찾아보는 그런 연습들을 하면서. 아 이게 정말 현실과 괴리된 게 아니라 우리 실생활과 멀리 있는 게 아니고 정말 가까이 있는 얘기들을 하는구나라는 것들을 제가 이야기를 해주고 싶었어요. -연구참여자 C 개별 면담

### 2) 수업 가치에 대한 딜레마

경기꿈의대학 교수자들이 삶과 얕의 일치를 추구하는 수업을 위해 정답보다는 방법을 알려주고, 학생과의 상호소통을 통한 성취를 추구하고자 한다. 그러나 많은 학생들은 “대학 입시와 관련된 이야기에선 눈이 초롱초롱해지다가도 수업하자고 하면 흐트러지는”(연구참여자 E 개별 면담)

경우가 많다. 결국 경기꿈의대학 수업은 학생들에게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한 ‘스펙’의 하나로 여겨지기도 한다.

학생들이 경기꿈의대학에 참여하는 동기부여에서 제가 교수자로 참여하는 의도와는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경기꿈의대학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하면서 이 학생들의 대부분이 일단은 스펙을 따기 위해서, 생활기록부에 넣는 거에 대한 초점이 더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연구참여자 A 개별 면담

학생들은 경기꿈의대학이라는 마을교육공동체에 참여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신자유주의 교육 생태계에 놓여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연구참여자들은 학생들이 이곳에서만큼은 자유롭기를 바란다. “영원한 고통은 없으며 지금의 순간도 지날 것”(연구참여자 D 개별 면담)이기에 학생들이 지닌 가능성을 발견하고 지지한다. 이러한 정서적 지지와 수업을 통해 능동적인 행위 주체로 변화한 학생들을 만나는 것은 매우 기쁘고 보람된 일이지만, 한편으로는 학생 앞에 놓인 당장의 현실에 마음이 쓰이는 것 또한 사실이다.

이름도 다 기억을 하고 그러는데 그 친구가 딱 첫 시간에 들어오자마자 제가 ‘이거 왜 듣냐’라고 그랬어요. ‘작년에 듣지 않았어 또 이거 왜 들어’. ‘어 다시 한번 듣고 싶어서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너 고3 아니야? 다시 듣는 것도 좋은데..’ -연구참여자 C 개별 면담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꿈의대학이 “목적은 서로 달랐지만 세상을 확장하는 데는 상당히 도움을 줄 것”(연구참여자 A 개별 면담)이라는 믿음을 갖는다. 이러한 작은 시도가 언젠가는 학생들의 마음 안에 하나의 씨앗이 되어 변화를 주도해나갈 것이다.

### 3) 상호소통 부족의 아쉬움

경기꿈의대학의 학생과 교수자의 소통이 중심이 되는 교육 패러다임을 확산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참여 주체 간의 상호소통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이지영 외(2020)가 지적하고 있듯이, 경기꿈의대학을 포함한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은 다양한 참여 주체의 요구를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도 연구참여자들은 학생과의 상호소통이 주로 이루어지는 교육 환경에 놓여 있는 반면에, 동료 교수자나 기관, 교육청 등과의 상호소통 부족에 대한 아쉬움을 나타냈다. 연구참여자 C는 교육청에서 갑작스럽게 받은 문자 메시지에 당황하기도 하였다. “경기꿈의대학은 강의식 위주의 수업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학생들의 진로 개척을 목적으로 하는 수업입니다.”라는 일방적인 문자 메시지는 마치 모든 교수자들이 경기꿈의대학에서의 수업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기 때문이다. 경기꿈의대학의 운영방식은 교육청이 마을기관으로부터 예산안, 강의계획서 등을 심의하고 마을기관은 교수자들 서류 진행 결과나 기타 안내사항 등을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교육청과 교수자는 서로의 의견을 나누고 개선을 논의할 기회는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아쉬운 점은 그거예요. 본인도 해보셔야 돼요. 본인도 강의 하나는 해봐야 돼요. 한 군데라도. 이게 자기가 해보는 거랑 안 해보는 게 너무 다른 게 강사 사이트로 들어갔을 때 또 관리자로 들어갔을 때랑 이게 느낌이 다르거든요. -연구참여자 D 개별 면담

연구참여자 D가 지적하듯이, 다양한 주체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상호소통의 장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한편 동료 교수자들과는 마을기관에 주최하는 워크숍에서 1년에 2~3번 정도 교류한다. 이 시간은 교수자들 서로가 발전할 수 있는 의미 있는 만남이다. 이러한 만남은 서로 간의 교육사례를 나누고, 자신의 교육 방식을 성찰하고 발전시키는 기회가 된다.

실제로 강의를 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조금 더 듣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그냥 듣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질의와 응답을 통해서, 질문할 게 되게 많거든요. 교수자들 나름대로 뭔가 고민들이 되게 많거든요. 이거 하면서. 이거 내가 잘하고 있는 건지. 못하고 있는건지 그 사례를 통하는 사람한테 또 아이디어도 얻고. -연구참여자 A 개별 면담

연구참여자 C의 경우, 연구참여자 D의 사례 발표에서 영향을 받아 학생들의 이름을 기억해주기 위해 노력하기도 하고, 연구참여자 E는 동료 교수자의 교수법이나 학생과의 소통 방법에 대한 노하우를 많이 배웠다. 경기꿈의대학이 마을교육공동체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교수자와 학생과의 상호소통, 방향성을 알려주는 수업뿐만 아니라 다양한 참여 주체들이 소통하고 연계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 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경기꿈의대학 수업실행에서 나타난 교수자의 행위자성을 상호소통의 과정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과거와 미래에 대한 개인적 차원, 학생과의 관계적 차원, 교육 환경과의 맥락적 차원 세 가지 차원에서 행위자성이 발휘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에 따른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교수자의 과거의 경험과 교수자로서의 발전을 꿈꾸는 미래지향적인 면이 상호소통하고 있었다. 이는 현재 학생이나 교육적 맥락과 상호소통을 하는데 영향을 주는 요인이 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Emirbayer와 Mische(1988)가 행위자성에서 과거-현재-미래의 시간적 차원이 영향을 미친다고 것과 일치한다. 유용모와 김미숙(2020)은 시간적 차원이 현재의 행위자성에 어떻게 발현되는지 연구하였는데 과거에 생소하고 어려웠던 일을 처리하고, 그것을 극복해나갔던 과정들이 현재의 낯선 업무를 맡게 될지라도 능동적인 행위자성을 발휘할 수 있는 요인이 됨을 제시하였다. 미래지향적인 면은 현재를 더 나은 무언가로 변화해나가고자 하는 의지로 설명하고 있다. 즉 과거에 능동적인 행위자성을 발휘하였던 경험과 미래의 변화시키고자 하는 지향성은 현재의 행위자성을 발휘하게 하는 필요충분조건이 되는 것이다. 반면에 본 연구에서 과거의 경험은 학생



들에게 연민과 이해의 태도를 보여주는 행위자성의 요소이자 학생과의 상호소통을 중시하는 행위자성을 발현시키는 근거가 되고 있다. 또한 교수자로서의 발전의 기회로 경기꿈의대학의 교수자로서 기존의 교육 방식과는 다른 수업을 수행할 수 있는 행위자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즉 무언가를 극복하고 성취하는 과정에서의 행위자성이라기 보다는 과거의 경험으로부터의 반성적 사고와 자기발전에 대한 지향으로서 행위자성이 발휘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행위자성의 차이는 경기꿈의대학이 경기도 교육청의 ‘경기혁신교육’ 사업의 일환으로 교육 혁신의 맥락에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수자들은 구조의 변화를 주도하는 행위자성을 요구받기 보다는 현재의 맥락을 토대로 함께 발전해나가는 성찰적 주체로서의 행위자성을 요구받는다.

둘째, 학생과의 상호소통을 위한 행위자성이 나타났다. 학생들에 대한 연민과 이해를 바탕으로 새로운 교육 환경 속에서 점수로 환산되지 않는 상호소통으로서의 성취를 이루고자 하였으며, 코로나 19로 인한 온라인 교육 환경에서 학생들과의 상호소통을 이어나가기 위해 노력했다. 경기꿈의대학은 평가가 존재하지 않는다. 교수자로부터 학생들은 평가에 대한 부담감 없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에 대한 성취는 학교에서의 것과는 달리 수업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와 능동적인 주체로 변화하는 학생의 모습으로 환원된다. 교수자들도 이러한 변화에 보람을 느끼며, 더 나은 교육과정을 제공해주고자 하는 행위자성이 발현된다. 이연우(2018)에서 교수자의 변화에 영향을 주는 주된 요인은 학생들의 반응과 변화라 밝히고 있다. 본 연구에서도 교수자들은 학생들과의 상호소통이 상호 발전하는 주요한 요소로 작동하였다. 코로나 19로 인해 온라인 수업이 실시되자, 학생들과의 상호소통을 위해 이름을 부르거나, 과제를 부여하기도 하고 비대면 수업환경을 활용하는 등의 시도가 나타났다. 다시 말해 학생과의 상호소통에 있어 절대적인 행위자는 존재하지 않으며, 상호의존적으로 행위자이자 순응자로 함께 발전해나가는 관계성이 나타났다. 원격 수업에서의 교수자의 행위자성을 연구한 이해경과 김희백(2021)은 학생들의 참여를 중요시하는 교수자일수록 적극적인 행위자성이 나타난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경기꿈의대학은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성취로 이어지는 환경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상호소통에 대한 행위자성이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셋째, 교육적 맥락과의 상호소통에서는 정답이 아닌 방법을 알려주는 수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한편 수업 가치에 대한 딜레마에 직면하고 있었다. 또한 학생 이외의 구조적, 물리적 요인과의 상호소통 부족의 아쉬움을 나타냈다. 경기꿈의대학은 교수자의 자율적인 수업운영이 가능하다. Blase와 Kirby(1999)는 자율권에 대해 스스로 규칙을 정할 수 있으며, 그것을 실행하고, 실행에 대한 평가를 내릴 수 있는 것이라 정의하였다. 경기꿈의대학의 교수자는 자율적으로 수업과정을 운영하며 실행할 수 있다. 따라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 문제를 해결해 나갈 힘을 수업에서 주고자 하였다. 그러나 경기꿈의대학에서 교수자는 수업의 결과를 스스로 평가하지 못하며, 경기꿈의대학의 발전을 주도하는 주체가 되지 못한다. 단지 학생들이 놓여 있는 교육 현실 앞에서 딜레마를 경험하고 연민과 이해를 바탕으로 학생들이 이곳에서만큼 자유롭기를 희망한다. 한편 연구참여자들은 학생 이외의 주체와 상호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에 아쉬움을 나타냈다. 경기꿈의대학이 마을교육공동체를 지향하고 있는 만큼 다양한 참여 주체 간의 상호소통이 이루어져나가는 것이 진정한 혁신교육으로 나아가는 토대가 될 것이다.

본 연구는 경기꿈의대학 수업실행 과정에서 나타난 교수자의 행위자성을 탐구하였다. 경기꿈의대학은 미래 교육으로 나아가기 위한 실험적인 과정으로서, 새로운 교육 환경에서 교수자의 행위자성을 연구하는 데 있어 본 연구가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다만 경기꿈의대학은 마을교육공동체를 표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적 맥락에서 다양한 참여 주체의 상호소통의 부족이 확인되었다. 경기꿈의대학 교수자들이 다양한 참여 주체와도 상호소통하며 행위자성을 발휘할 수 있을 때, 교수자로서 진정한 자율권을 행사할 수 있고 마을교육공동체가 지향하고자 하는 바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마을의 모든 구성원이 마을 교육의 주체적 행위자임을 인식하고, 학생과 학부모, 교수자, 마을기관 및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상호소통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신자유주의적 교육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사회적 현실에 대응할 수 있는 마을교육공동체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강충열, 권동택, 신문승, 이성대, 송주명, 서길원, 이광호, 이범희(2013). 학교혁신의 이론과 실제. 서울: 학지사.
- 경기도교육청(2017). 2017 경기꿈의대학 운영 안내.
- 경기도교육청(2018). 2019학년도 경기꿈의대학 운영안내서.
- 경기도교육청(2021). 2021 경기꿈의대학 실행 계획.
- 경기도교육연구원(2021). 경기꿈의대학 성과 및 중장기 발전 방안.
- 김영순, 김진희, 강진숙, 정경희, 정소민, 조진경, 조현영, 최승은, 정지현, 오세경, 김창아, 김민규, 김기화, 임한나(2018). 질적연구의 즐거움. 서울: 창지사.
- 박지혜(2020). 고교생의 진로 역량 신장을 위한 프로그램으로서 ‘경기 꿈의 대학’의 성과와 개선 방안 탐색. 교육학연구, 58(1), 221-244.
- 서용선, 김용련, 임경수, 홍섭근, 최갑규, 최탁(2015). 마을교육공동체 개념 정립과 정책 방향 수립 연구. 경기도교육연구원.
- 유용모, 김미숙(2020).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사업에 나타난 교사 행위주체성(teacher agency). 학습자 중심교과교육연구, 20(18), 905-935.
- 윤혜정, 김희수(2019). 활동이론을 통한 마을교육공동체 분석. 교육연구, 41(1), 105-123.
- 이민경(2020). 학습자 중심 교육에 대한 교사들의 경험적 내러티브.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0(18), 19-48.
- 이성희(2021). 생태학적 “교사 행위주체성”의 한계와 대안. 교육사회학연구, 31(1), 129-154.
- 이소연(2012). 경제교육에 대한 교사의 신념과 교수 행위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연우(2018). 교사행위자성(teacher agency)의 영향요인 분석: 세계시민교육 선도교사 활동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지영, 김민조, 장희선, 김인재(2020). 혁신교육 발전을 위한 ‘마을교육공동체 정책’ 내실화 방안. 경기도교육연구원.
- 이혜경, 김희백(2021). 변화의 주체로서 과학 교사의 행위주체성 탐색 -COVID-19에 따른 원격 수업 실행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과학교육학회지, 41(3), 237-250.
- 이혜정, 최유리, 홍세영(2019). 2019 경기꿈의대학 성과와 과제. 경기도교육연구원.
- 장세영(2020). 지역발전을 위한 대학의 연계 교육 활성화 방안 -‘경기 꿈의 대학’ 운영 사례를 중심으로-. 조형미디어학, 23(2), 186-194.
- 정진철, 서우석, 임소현, 박보람, 이영광, 김채린(2020). 주도 주체에 따른 진로교육 마을공동체 유형화 연구. 농업교육과 인적자원개발, 52(3), 49-77.
- 최승은(2015). 상호문화교육의 관점에서 본 초등교사의 음악교육 경험에 관한 연구. 인하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최지인(2017). 마을교육공동체의 운영 현황 및 개선 과제. 이슈와 논점. 제1269호.
- 최태호(2018). 혁신교육 측면에서 본 경기 꿈의 대학의 정책적 함의.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논

문지, 8(8), 567-575.

- Archer, M. S.(2000). *Being human: The problem of agenc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Bandura, A.(1982). Self-efficacy mechanism in human agency. *American psychologist*, 37(2), 122.
- Biesta, G., & Tedder, M.(2006). *How is agency possible? Towards an ecological understanding of agency as achievement*. Learning lives: Learning, identity, and agency in the life course.
- Blase, J. & Kirby, P.(1999). *Bringing out the best in teachers: what effective principals do*. Corwin Press.
- Buber, M.(1958). *I and Thou*. Translated by R.G. Smith 2nd ed. New York: Charles Scribner's Sons. 1958.
- Burkitt, I. (2016). Relational agency: Relational sociology, agency and interaction. *European Journal of Social Theory*, 19(3), 322-339.
- Dewey, J. (1899). *The school and society: Being three lectures*.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Emirbayer, M. & Mische, A.(1998) What is agency?. *The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103, 962-1023.
- Freire P.(1994). *Pedagogy of hope: reliving pedagogy of the oppressed*. New York :The Continuum Publishing Company. 교육문화연구회 옮김(2002). 희망의 교육학. 서울: 아침이슬.
- Giddens, A.(1984). *The constitution of society: Outline of the theory of structuration*. Cambridge: Polity.
- Holzbrecher, A.(2004). *Interkulturelle Pädagogik*. 정기섭 외 역(2014). 상호문화교육의 이해: 교사를 위한 교수-학습방법, 성남: 북코리아.
- Miller, A., Wilt, C., Allcock, H., Kurth, J., Morningstar, M., & Ruppert, A.(2020). Teacher agency for inclusive education: An international scoping review. *International Journal of Inclusive Education*, 1-19.
- Priestley, M., Biesta, G., & Robinson, S.(2015). *Teacher agency: An ecological approach*. London and New York: Bloomsbury Publishing.
- Shaw, K. E.(1978). Understanding the curriculum : The approach though case studies. *Journal of Curriculum Studies*, 10(1), 1-17.
- Smith, L. M.(1978). *An evolving logic of participant observation, educational ethnography and other case studies*. in L. Shulman(Eds.). Review of Research in Education. III.: Peacock.
- Stake, R. E.(1981). *Case study methodology: An epistemological advocacy*. In W.W.Welsh(Eds.). Case study methodology in educational evaluation. Proceedings of the 1981 Minnesota Evaluation Conference. Minneapolis: Minnesota Research and Evaluation Center.
- Taylor, C.(1977). *What is human agency? In T. Mischel (Ed.). The self: Psychological and philosophical issues* (pp. 103-135).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Yin, R. K.(1994). Discovering the future of the case study method in evaluation research. *Evaluation Practice*, 15, 283-290.

## Abstract

# A Qualitative Study on Instructor Agency in Gyeonggi Dream Campus's Class Execution Process

Choi, Soan · Kim, Youngsoon(Inha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agency of the participating instructors of the Gyeonggi Dream Campus, focusing on the mutual communication process. A qualitative case study was conducted after selecting five instructors from the Gyeonggi Dream Campus as research participants. The data collection was mainly conducted through individual written and individual interviews; the lecture plans and research reports were used as supplementary material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instructor's reflective thinking from past experiences and the future-oriented aspect of developing as a instructor interacted and influenced the present agent. The reason is that the instructors are required to act as reflective subjects in the structural context of Gyeonggi Dream Campus. Second, based on compassion and understanding for students, they tried to achieve achievement through mutual communication in a new educational environment, and their interactive agency was strengthened in the online educational environment caused by COVID-19. Third, in an educational context, they wanted to run a class that showed a method that was not the right answer, but they experienced a dilemma in the extant neoliberal educational foundations. In addition, it expressed the regret of the lack of communication with participants other than students. To establish itself as a true village education community, it is necessary Gyeonggi Dream Campus provides opportunities for mutual communication where various participants can exercise their agency. Through this, it will be possible to break away from the neoliberal educational paradigm and respond to the social reality in which various cultures coexist.

[Keywords] Gyeonggi Dream Campus, Instructor Agency, Village Education Community, Innovation Education, Qualitative Study